


석사학위논문

제주국제관악제의 발전방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플루트전공

문 지 혜

2009년 1월

제주국제관악제의 발전방향

지도교수 허대식

이 논문을 음악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월 일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플루트전공

제출자 문지혜

문지혜의 음악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인규

심사위원 박순방

심사위원 허대식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9년 1월 일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1
II. 축제의 이론적 고찰	3
1. 축제의 개념 및 기능	3
1) 축제의 개념	3
2) 축제의 기능	5
2. 국제축제의 의미	6
1) 국제축제의 기능 및 유형	6
2) 국제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9
III. 제주국제관악제의 현황분석	11
1. 배경과 과정	11
1) 제주 관악의 역사	11
2)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	14

2. 제주국제관악제의 방향과 목표	-----	21
3. 제주국제관악제의 축제개요	-----	21
4. 제주국제관악제의 운영방침	-----	22
5. 제주국제관악제의 축제 추진 조직	-----	23
6. 제주국제관악제의 홍보 방법	-----	24
7. 2008 제주국제관악제의 규모	-----	26
8. 제주국제관악콩쿠르	-----	27
IV. 제주국제관악제의 활성화 방안	-----	30
1. 문제점	-----	30
1) 예산	-----	30
2) 전문 인력 부족 및 홈페이지 부실	-----	33
3) 주민 참여 프로그램 부족	-----	34
2. 해결방안	-----	34
1) 예산 확충	-----	34
2) 전문 인력 구축 및 홈페이지 강화	-----	35
3) 관악 인구 저변확대	-----	36
4)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7

V. 결론	38
참고문헌	40
국문초록	42
Abstract	44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여러 선진국들은 각국을 대표하는 국제예술축제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예술을 창조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지향하면서 국제적인 문화를 전보다 많이 수용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라는 타이틀을 내건 예술축제가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국제문화관광축제로서 아름다운 섬 제주를 무대로 진취적이고 조화로운 관악을 통해 지역과 국가 간의 친선과 제주도민의 화합을 도모하며 제주를 세계에 알리자는 목표를 가지고 1995년 창설되었다.

본 논문은 1995년에 창설되어 2008년 현재까지의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표출된 문제점을 연구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전체 5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제2장은 일반적인 축제와 관련된 각종 서적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축제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이다. 제3장은 전문서적 및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제주국제관악제의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다. 제4장은 제주국제관악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제5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전반적인 요약과 제주국제관악제가 국제행사로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국제관악제이며 그 범위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4년간

에 개최된 모든 제주국제관악제를 포함한다. 연구의 방법은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의 발견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실증적·처방적 방법에 의하며 각종 연구문헌과 단체, 관련 학회 등에서 발행한 정기간행물과 보고서 등에 나타난 자료를 활용하였다.



II. 축제의 이론적 고찰

1. 축제의 개념 및 기능

1) 축제의 개념

인간은 고대로부터 자신의 안위를 결정한다고 믿는 절대적인 존재를 정하고, 그를 신격화한 후에 그에 대한 숭배와 함께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물론 앞으로의 소망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이것이 축제의 발생이라고 볼 수 있다.

축제는 인류가 처음 시작된 때부터, 사회를 구성한 때부터 존재해왔지만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과 의미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축제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의 수도 적지 않은데 자주 사용하는 용어만 나열해도 잔치, 놀이, 축전, 제전 등이 있다. 축제란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 잔치, 축전으로 순화. 축하와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¹⁾,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²⁾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진다. 축제에 대한 영어적 표현은 Festival이라는 말과 Carnival이라는 말이 있는데 Festival은 사전적으로 특별한 대상에 대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말이며 Carnival은 사순절 직전의 전야에 행해지는 기독교적 축제를 말한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는 축제를 '예술적 요소가 포함된 제의를 일컬으며, 축(祝)과 제(祭)가 포괄된 문화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축제 관련 전문서적이나 문헌에 나타난 국내외 학자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호이징가(Johan Huizinga)는 그의 저서 호모 루덴스(Homo Ludens, 1938)에서 '인간의 유희적 본성이 문화적으로 표현된 것이 축제이며 이 축제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놀이는 비일상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이지만,

1) 네이버 백과사전

2) 한국브리태니커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

일상적인 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일' 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신학자 하비 콕스(Harvey Cox)는 '축제는 억압되고 간과되었던 감정표현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기회'라고 규정하면서 인간이 과거를 포함한 삶의 확장된 영역을 그 자신의 체험 속으로 적용시키는 인간적인 놀이 형식으로, 일상을 깨트리고 인간에게 과거를 열어 보임으로써 그의 경험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³⁾

우리나라의 축제 연구자인 김명자는 이와는 또 달리 축제를 예술적 요소가 포함된 제의라고 정의하면서 축제 속에는 모든 예술이 망라되어 얽혀있는 종합예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실상 축제에서 종교적 요소를 떼어 버릴 수는 없으나 오늘날에는 세속화되어 있으며 유희적이고 놀이적인 모습만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한다.⁴⁾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 종교적 제의나 신성성보다는 유희성이나 놀이성에 더 중점적으로 축제가 다뤄지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사회에 고유성과 전통성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의성도 많이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축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질 높은 삶에 대한 추구를 1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사회구성원간의 동질성 공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즉 축제의 유희성과 놀이성을 통해 개인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고으로써 정신적 삶의 질 향상을 가져다주며 동일한 의미를 가진 사회 속에 통합되어있다는 확신감과 소속감으로 구성원간의 동질성을 확립시키고 지역민을 결속시키는데 축제를 활용하게 된다.⁵⁾

오늘날의 축제는 일반적으로 각 지역이라는 공간적인 제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축제의 의미에는 각 지역의 고유한 사회, 문화적인 특성과 생각이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축제는 그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각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과 이미지를 창출시킬 수 있다. 특히 축제가 갖는 독특한 매력요인과 관광자원성은 지역 내 특정 장소로 외부 관광객

3) Harvey Cox, *The Feast of Fools: Theological Essay on Festivity and Fantasy*, Cambridge: Mass, 1969, pp.7~12

4) 김명자, 「축제의 기원」, (서울: 문화관광부), 1998, pp.14~15

5) 문화관광부, 「한국의 지역축제」, 1996, p.142

들을 끌어들이며 경제의 활성화라는 차원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2) 축제의 기능

축제가 역사와 사회, 문화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공간이든 또 어떤 시간적 환경이든 그 환경에 맞는 기능을 하게 된다. 한국관광공사가 정의내린 축제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첫째, 축제는 억압된 인간의 감정과 행동 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축제는 평상시에 억눌려있던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표현하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기회가 된다. 이러한 축제의 기능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점을 일깨워준다. 전통적이고 역사성 있는 축제는 과거와 현재를 인간들에게 이어주고 현재의 축제 행위로부터 미래를 기약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축제는 인간 본연의 위치를 발견하게 된다. 노동은 우리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이지만 노동이 삶의 목표는 아닐 것이다. 축제 기간 동안 축제의 참여자들은 일상의 일손을 멈추고 잠시나마 전통과 환상 속에 잠기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고귀함을 일깨워주게 되며 한 단계 높은 인간의 위치를 찾기 위해 축제 후 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한다.

셋째, 축제는 사회비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인 한계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사회적 구조는 사회적 신분의 허망함을 일시적이거나 폭로하여 준다. 따라서 사회의 유연성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풍자와 민속의 한마당에서 비롯되는 사회 비판적인 기능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축제는 표면적으로는 건설하고 질서정연해 보이는 경직된 산업 사회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고 인간의 생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촉진 시켜 준다.

넷째, 축제는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사회적·종교적 기능을 수행한다.

개발도상국의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축제나 하나의 공동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

6) 한국관광공사, 「한국민속축제 관광 상품화 방안」, 1990, pp.12~14

적 또는 종교적 목적의 한 활용 수단이 되기도 한다.

다섯째, 축제는 지역간·국가간의 문화교류의 다리 역할을 한다. 지역간·국가간의 인적·문화적 교류와 병행하여 축제는 인간들의 새로운 의식, 새로운 관계, 새로운 혁신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섯째, 축제는 취약한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지역축제는 보다 폭넓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으므로 지역축제는 빈약한 지역 경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축제가 시작되면 많은 관광객과 그들을 상대로 한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됨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일곱째, 축제는 해당 지역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거나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지역민과 관광객간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결국 축제는 사회통합, 집단의 균형유지, 신화의 재현을 통한 삶의 궁극적 의미 체득 등 특수한 자연 및 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되어 지역 축제를 통한 만남과 자연적인 소속확인 의 기능을 하고 있다.

2. 국제축제의 의미

1) 국제축제의 기능 및 유형

근래에 국제사회는 문화적인 개념을 떠나서는 존재하기 힘들게 되었고 국제적인 경제 프로그램에서도 생존 자체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풍요로움을 목표로 두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경향이다. 세계화를 지향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문화의 수용이 전보다 자연스러워졌으며 국제적 문화에 대한 향수층의 욕구 또한 커지게 되어 각 지역에서 국제행사를 많이 마련하고 있다. 국제축제는 국내무대와 국제무대를 연결해주는 교량역할을 하는 축제로 세계무대 진출의 실질적인 발판을 제공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예술축제는 각기 다른 배경으로 창설되어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축제 개최의 목적과 형태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예술축제의 특성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

은 힘들다.7)

예술축제의 프로그램 구성과 개최목적에 따른 분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구성에 따른 예술축제의 분류8)

목적	특성	축제사례
종합편	종합적인 예술장르로 구성. 음악, 연극, 무용 등의 무대예술 외에 미술, 영화, 건축 등 여러 가지 예술장르를 프로그램에 포함시킴.	뉴욕국제예술제 로스앤젤레스 페스티벌 홍콩 예술제 싱가폴 예술제
복합형	같은 주최기관이 시기를 늘려 복수장르의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형태. 사무국의 상설화와 운영기반의 정비가 불가결함.	베니스 비엔날레
단일형	중심이 되는 단일 예술장르가 있고 예외적으로 다른 분야를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도 함.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탱글우드 페스티벌 런던국제연극제 국제누벨댄스 페스티벌

7) 신혜영, "문화예술축제 참여주체의 역할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2, p.84

8) 논자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축제에 관한 실태조사」, 1996, pp.6~9 재구성함

개최 목적에 따른 예술축제의 분류⁹⁾

구분	목적	사례
예술작품의 소개	널리 예술을 진흥하거나 국제적인 평가를 받은 예술의 감상기회제공과 흥행성 및 오락성이 높은 작품의 상연을 목적으로 함	에딘버러국제페스티벌 베를린페스티벌 잘츠부르크페스티벌 뉴욕국제예술제
예술창조	기존의 예술장르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예술표현의 추구. 특히 현대예술의 새로운 경향을 선정, 소개를 목적으로 개최하며 페스티벌 창설 배경에는 예술적으로 강한 캐릭터를 가진 리더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음. 예술 소비의 장이 아닌 생산의 장.	아비뇽페스티벌 런던국제연극제
도시(예술)활성화	도시에 있어 기존 예술 활동의 새로운 조류를 제시하거나 해당 도시에 있어 예술 활동의 활성화가 주목적. 즉 개최 도시의 이미지나 문화를 상징하는 예술 이벤트로서의 페스티벌이며 대도시 '위주'.	뉴욕국제예술제 런던국제연극제
지역진흥	지역 경제의 재건이나 경제과급효과를 중시. 페스티벌의 존재에 따른 2차적 효과로서 경제적 과급효과를 갖는 경우가 많고 지방도시나 휴양도시가 중심.	하쿠슈여름페스티벌 스트라트포드 페스티벌
예술가 육성과 예술 보급	교육기관의 병설과 콩쿨 개최 등을 통한 예술가 및 감상자 육성. 교육 보급적 요소가 강함	사브리나오페라 페스티벌 탱글우드페스티벌 삿뽀로퍼시픽뮤직페스티벌

9) 백선훈,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84

2). 국제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제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지역경제 효과, 사회적 효과, 문화적 효과, 교육적 효과로 나눌 수 있다.¹⁰⁾

첫째, 지역경제 효과로 국제축제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축제에 참여하거나 관람하는 관광객은 숙박, 교통, 쇼핑, 인근지역 관광에 대한 지출을 하게 된다. 관광객의 지출은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효과, 고용효과, 연간산업 파급효과 등을 유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효과로 국제축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적 공감대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지역주민들은 특정 축제가 자기 고장에서 열리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지역사회 및 문화에 대하여 한층 더 애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귀속감을 갖게 해 주며 또한 지역주민들 공동으로 이러한 축제를 준비하고 참여함으로써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셋째, 문화적 효과로 국제적인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그 지역의 예술수준을 높여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은 자기 지역에서 열리는 예술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넷째, 교육적 효과로 축제의 목적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적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관객에게 문화예술 감상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관객 및 인재양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적인 효과가 있

10) 이수연, "대관령 국제음악제 활성화 방안 연구", 추계예술대 예술경영대학원, 2006, p.16

다.

위의 효과들로 볼 때 국제적인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Ⅲ. 제주국제관악제의 현황분석

1. 배경과 과정

1) 제주 관악의 역사

예부터 제주에는 사면이 바다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유배지로만 인식되었고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제주에서 관악이 시작된 것은 일제치하 시대의 일본의 교육제도가 완성되었던 1930년대 중반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몇 개에 불과했던 보통학교가 1930년대 중반에 20여 개로 늘어났지만 학교에서 하는 관악대의 활동은 일본군의 필요에 따라 더 용이하게 쓰려는 수단에 불과했다.¹¹⁾ 1930년대 중반 이후 1945년 8·15해방 때까지 여러 소학교에서의 관악대 활동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마을에서의 신호나 등·하교 시 집 단신호와 행진, 훈련 등에 활용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가운데 1942년에 설립된 애월보통학교 관악대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8·15해방과 미군의 주둔이 이루어지고 일제 말기부터 이루어졌던 보통학교 중심의 관악활동은 제주초급중학교(현 제주중학교)에서 1947년 본도 최초의 9인조 중등학교 관악대를 창설하기에 이른다. 이후 제주도에서 가장 큰 회사였던 동척회사(제주주정회사의 전신)의 사원들로 구성된 소규모의 직장 관악대가 창설되어 활동 하였고 1949년에는 제주도내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이었던 제주농업고등학교에 관악대가 창설되어 활발한 활동으로 음악의 불모지였던 제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50년 한국 전쟁의 발발은 제주 음악사에 또다른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그것은 한국 음악계의 많은 인사들이 전쟁 중 제주로 피난을 와 경험이 부족했던 도민들에게 순수 예술음악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시켜주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제주 음악의 발전을 모색하게 한 것이다. 이들 음악인에는 이성삼(합창, 지휘), 계정식(바이올린), 박재훈(작곡, 신성여자중학교 교가 작곡), 김금환(성악, 오현고등학교 피난분교 음악교사로 '춘향전'을 공연), 이성재(제주중학교 교사) 등이

11) 제주도지 편집 위원회, 「제주도지(상)」, 제주도, 1982, p. 411

다¹²⁾. 특히 1952년 9월 제주 주둔 미군 CAC부사령관으로 취임 한 찰스 E. 길버트 소령은 제주 근무기간동안 오현고등학교, 한국보육원, 제주농업고등학교, 제주중학교, 구세군보육원 등에 악기 및 악보를 기증하고 직접 지도에 나선 제주 관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제1훈련소 군악대장 강문봉 대위도 각 학교 밴드를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어 관악대의 수준은 날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종전 후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군악대와 경찰악대가 철수하면서 오현고등학교 관악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 악대는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¹³⁾

1962년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가 결성되고 점차 활동의 폭을 넓혀 가면서 제주예술제와 한라문화제(1962년 제주예술제로 출범, 1965년 한라문화제로 개칭, 2002년 탐라문화제로 개칭)에 해마다 참여해 음악의 수준을 높여 나갔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남제주군 서귀읍을 중심으로 몇몇 관악대가 창설되었다. 1964년 효돈중학교는 12인조 관악대를 창설하였고 1966년 서귀중학교에는 10인조의 관악대가, 1967년 세화고등학교에서 20인조의 관악대가 창설되었으며 1968년에는 제주여자고등학교 관악대가 창설되는 등 활발한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주 출신 음악도들이 현저하게 배출되었고 국내의 저명 음악인, 단체들을 초청하여 음악회를 열기도 하였으며 특히 학교 음악을 중심으로 경연대회와 예술제 형식의 음악회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197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악대가 창설되고 그 후 제주상업고등학교, 남주고등학교 및 영진보육원 등에 새로운 관악대가 창설되었으며 1973년 한국 관악대지도자회의의 결성은 관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악기의 노후 및 지도자의 빈곤과 학교측의 지속적인 지원 부족 등으로 제주여자중학교를 비롯한 7개교의 관악대가 중단하거나 해체되었다.

1981년 신설된 제주대학교 음악교육과와 1988년 개관된 제주도 문예회관은 제주의 음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또한 1982년 40여명의 학생과 직장인으로 구성된 탐라관악합주단이 창단되었으며 같은 해 대정고등학교, 1983년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1986년 대기고등학교, 1987년 남녕고등

12) 부만근, 「광복제주 30년」, 서울(설문조사), 1982, p.329

13) 제주시,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문화 예술 사회적 환경에 대한 연구」, 2004, p.39

학교 등에 교악대가 창설되었다. 특히 탐라관악합주단은 1985년 제주시립합주단, 1987년 제주시립교향악단으로 개칭함으로써 현재 제주도를 대표하는 연주단체의 모체가 되었다. 1984년 열린 제 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제주도 역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체육행사로 연합관악대가 개회식과 폐회식의 진행을 담당하였다. 이 대회에서의 연합관악대 운영의 성과는 이후 계속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되고 관악활동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음악활동의 양상도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제주한라대학과 제주관광대학의 음악관련 학과 신설, 대학의 음악관련 학과에서 배출된 음악인들의 활동, 새로운 연주단체들의 잇따른 창단과 활동 등이 그것이다. 1992년도에는 한국관악협회가 해마다 개최하는 전국관악제가 대한민국관악제로 이름을 바꾸어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는 제주도에서 최초로 열린 전국 규모의 관악축제였다.

대한민국관악제와 여러 해에 걸친 제주관악제의 성공적 개최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4년에는 일본 하마마쓰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에 제주연합관악대가 참가하게 된다. 이때 참가국 관악단체들과의 관악정보 교환 과정에서 제주에서의 국제적인 관악축제를 구상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95년 제주국제관악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생겨난 수많은 축제들이 알맹이 없는 축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제주국제관악제는 국내에서 성공한 몇 안 되는 축제 중의 하나로 1990년대 제주도 음악계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¹⁴⁾

14) Ibid., p.40

2)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

해마다 8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리는 제주국제관악제는 제주 관악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 격년제로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1997년 제2회 대회까지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탕으로 1998년에는 일본, 대만, 독일, 한국에서 참가한 전문양상블, 관악독주 등 소규모의 양상블축제를 마련했다. 이 양상블축제는 대중적 호응이 높고 축제성이 강한 홀수 해의 밴드축제와 병행하여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짝수해의 행사이었다. 이때부터 짝수 해와 홀수 해가 각각 특징적으로 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함께 추구하는 축제로의 확실한 목표를 갖게 되었다. 1999년 제4회 때부터는 제주시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 하게 되었는데 이는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제주시의 의욕적인 조치였다. 관악 연주의 특성을 살려 참가 관악단들이 참여하는 경축 시가 퍼레이드를 열기 시작하였으며 참가 관악단의 지휘자들과 선발된 단원들이 공동으로 참가국의 민요를 중심으로 선곡된 곡을 연주해 서로의 우정을 증진시키는 우정의 밤을 열기도 하였다. 그리고 세계적인 관악 작곡가인 알프레트 리드(Alfred Reed, 1921 ~ 2005)를 초청하여 그의 지휘로 그의 작품을 연주하는 기회를 가졌다. 2000년에는 세계 젊은이들을 위한 관악콩쿠르가 양상블축제와 같이 열렸는데 이 대회는 세계의 젊은 관악인들의 의욕을 높이고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 최초의 국제관악콩쿠르이다. 2001년에는 한국지휘자협회 회장인 박은성이 NHK교향악단 지휘자이자 샌다이심포니 음악감독인 도야마 유조를 초빙해 지휘 캠프를 열어 제주국제관악제가 단순한 관악축제가 아닌 음악인들을 규합하는 내실 있는 국제 음악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2003년에는 합주를 통하여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미래의 음악인 양성을 하기 위해 초등학교 합주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제주국제관악제 행사 및 제주의 자연, 민속에 관한 사진공모전을 개최해 입상자들의 작품은 다음해 축제 시 전시 행사에 활용하였다. 2004년에는 제주국제관악제 기간 중에 제13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 (Asia & Pacific Band Director's Association)가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함께 개최되어 참가 관악단 단원들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양상블 공연과 세계 젊은 관악인들의 열띤 경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관악인들에게 제주국제관악제의 인지도를 확산시켰고 아시아태평양관악제는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서로의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2006년 역시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 제주대회가 같은 기간에 열림으로써 제주국제관악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2008년에 열린 제주국제관악콩쿠르의 7개 종목별 결선이 제주교향악단과 협연으로 치러져 음악적 전문성을 제고했고, 관악 거장들이 참여한 '마에스트로 콘서트' 등이 열려 관악제의 품격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사위원장인 제프리 펀더버그(Jeffrey Funderburk)는 콩쿠르가 불과 5회 만에 세계 최고수준 국제콩쿠르의 면모를 갖췄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빨리 성장한 콩쿠르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¹⁵⁾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열린 제주국제관악제의 행사 내용과 초청된 초청인사, 참가 단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

년도	출연단체		초청인사	축제 내용
	국내	국외		
1995	18개 단체 1093명	3개국 6개 단체 408명	3명	관악단 순회연주회, 공개강좌, 개막식
1997	18개 단체 1014명	6개국 9개 단체 504명	9명	관악단 순회연주회, 공개강좌, 개막식, 환영행사 '제주의 밤'
1998	14개 단체 695명	1개 단체 5명	5명	관악단 순회연주회, 공개강좌,
1999	37개 단체 1596명	5개국 9개 단체 492명	13명	관악단 순회연주회, 공개강좌, 개막식, 경축 시가 퍼레이드, 환영행사 '제주의 밤', 우정의 밤, 알프렛 리드의 작품세계

15) 김현중, "5회 만에 세계최고 콩쿠르 면모, 언빌리버블", 제주일보, 2008. 08. 21

16) 논자가 제주시,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문화 예술·사회적 환경에 대한 연구」 2004, p.25~27을 토대로 재구성함

2000	19개 단체 951명	5개국 8개 단체 94명	13명	양상블 순회연주회, 개막식, 경축 시가 퍼레이드, 환영행사 '제주의 밤', 제1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 콩쿨 입상자 음악회, 공개강좌, 세미나, 영화제, 악기수리 코너, 광장전시회
2001	40개 단체 2008명	8개국 56개 단체 959명	17명	관악단 순회연주회, 개막식, 경축 시가 퍼레이드, 환영행사 '제주의 밤' 알프렛 리드의 작품세계, 우정의 밤, 지휘자 캠프, 신예 지휘자 연주회, 공개강좌, 세미나, 전통 택견 시범, 재즈댄스 공연, 악기 수리 코너, 제주관악제, 숲 속의 음악회
2002	21개 단체 794명	7개국 10개 단체 87명	14명	양상블 순회연주회, 개막식, 경축 시가 퍼레이드, 환영행사 '제주의 밤', 제2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 콩쿨 입상자 음악회, 심포지움, 악기 수리 코너, 제주관악제, 전통줄타기 공연, 국방부군악대 타악팀 공연

2003	37개 단체 1960명	4개국 7개 단체 420명	19명	관악단 순회 연주회, 개막식, 경축 시가 퍼레이드, 환영행사 '제주의 밤', 공개강좌, 악기 수리 코너, 관악거장 초청 특별연주회, 우정의 밤, 사진공모전, 관악인 세미나, 아시아태평양관악대지도자협회 이사회, 타악그룹 '발광' 특별공연, 국방부군악대 타악팀 공연, 제1회 초등학교 합주경연대회 양상블 순회 연주회, 제3회 국제관악콩쿠르, 롱쿨 입상자 연주회, 제2회 초등학교 합주경연대회
2004	4개 단체 44명	9개국 9개 단체 113명	22명	참가 관악단 순회 연주회, 제13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 특별공연, 아시아태평양관악지도자협회 총회, 개막식, 시가 퍼레이드, 환영행사 '제주의 밤', 관악기 전시회, 관악기 무상수리 코너, 축제사진 전국 공모전, 축제 사진 전시회
2004 (아태 관악제)	44개 단체 1996명	5개국 20개 단체 1358명	20명	관악단 순회 연주회, 시가 퍼레이드, 제1회 대한민국 동호인관악단 경연대회, 제3회 초등학교합주경연대회, 트롬본·색소폰 관악캠프, 제주원드오케스트라 서울공연, 관악기 전시, 악기 수리 코너, 제주 춤 연구회 특별공연,
2005	37개 단체 1963명	7개국 15개 단체 777명	14명	

2006	19개 단체 889명	5개국 7개 단체 87명	37명	전문 금관앙상블 순회 연주회, 제4회 국제관악콩쿠르, 개막식, 경축 시가 퍼레이드, 환영행사 '제주의 밤', 제4회 초등학교 합주경연대회, 관악기무상수리코너, 관악기 전시, 축제 사진 전시
2007	37개 단체 1907명	4개국 8개 단체 604명	17명	관악단 순회 연주회, 시가 퍼레이드, 트롬본-플루트 관악캠프, 환영행사 '제주의 밤', 마칭밴드 공연, 관악기 수리 코너,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공연. 축제 사진 전시, 관악기 전시, 제2회 대한민국 동호인관악단 경연대회, 제5회 초등학교 합주 경연대회

초청연주자 소개

①알프렛 리드(Alfred Reed)

1921년 1월 25일 뉴욕 맨하탄에서 태어난 알프렛 리드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음악애호가인 부모님들의 영향으로 일반적인 교향곡과 오페라 대부분을 이미 초등학교 시절에 정통하게 된다. 열 살 때부터 정규음악교육을 받기 시작한 그는 트럼펫을 전공하였으며,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전문적인 연주자로서 활동하였다. 단순한 연주보다 작곡에 대한 그의 남다른 관심은 John Sacco에서 음악 이론과 화성법 연구를 하도록 이끌었으며 이후 Paul Yatin에서의 최우수 장학생으로 이어진다. 세계 2차 대전시기에 육군에 입대하여 제59 육군군악대의 책임을 맡게

되고 군악대장으로서 3년 6개월 동안에 그가 이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콘서트 밴드에 깊은 관심을 보여 군을 제대할 무렵에는 100여편에 달하는 작곡 및 편곡활동을 하게 된다. 콘서트 밴드, 윈드 앙상블, 교향악단, 합창단, 그리고 다양한 소규모 실내악단을 위한 250편이 넘는 작품 수가 지는 25년간 미국에서 필수곡으로 인정되어 연주되는 등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며 널리 연주되어지는 음악가중의 한 사람이다.

②스페니쉬브라스 러 메탈(Spanish Brass 'Laur-Metalls')

1990년도에 스페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출신으로 창단되었다. 이후 이들은 창작, 교육, 연주 등 음악 전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으로 금관앙상블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활발한 최고 금관앙상블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1996년 제6회 프랑스 '나르봉 국제콩쿠르'에서 1위 입상 이후 젊고 유능한 작곡가들의 여러 작품들이 이들에 의해 초연되었다. 이들의 연주는 절충주의를 표방한 최고의 예술성을 지니면서 라틴기질과 우아함으로 특징 지워진다.

③체스트넛브라스컴퍼니(The Chestnut Brass Company)

2000년 크로스오버부문 그래미상을 수상한 체스트넛브라스컴퍼니는 현대음악은 물론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오래된 금관악기 연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1977년 필라델피아 길거리 공연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북미, 남미, 유럽, 캐리비안, 아시아 등에서 지속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이들은 옛 악기의 소리와 고전적인 브라스 큐레이터로 선구적인 역할을 하며 여러 가지 특징적인 고악기들로 구성된 공연을 자주 한다. 이들은 꾸준히 고악기들을 수집, 공연하며 고대악기에 관한 이론을 정립해나가고 있다.

④프랑크 티켈리(Frank Ticheli)

프랑크 티켈리는 현재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작곡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태평양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작곡가로 활동하였다. 오케스트라, 밴드, 독주, 실내앙상블을 위한 그의 여러 작품은 북미, 유럽, 아시아, 남미, 호주 등에서 공연되었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들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아틀란타 심포니, 디트로이트 심포니,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오케스트라, 태평양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여러 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되었다.

그의 많은 작품은 전 세계에서 공연되었으며 1989년 Walter Beeler 상, 버지니아에서 열렸던 제11회 '새로운 음악을 위한 심포지움'에서 1위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2006년에는 내한하여 제주윈드오케스트라의 제4회 정기연주회에서 자신의 작품들을 직접 지휘하였다.

⑤부치나앙상블 '본'(Buccina Ensemble 'Bonn')

유명 오케스트라에서 활동 중인 연주자로 구성된 부치나앙상블-본은 1976년 Antonios Gerochristodoulou에 의해 결성되었다. 이 팀의 이름은 오랫동안 잊혀졌던 고악기인 '부치나(Buccina)'에서 명명되었으며 이들이 선보이는 음악적 표현과 다재다능한 능력 때문에 본(Bonn)의 음악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국내외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전통악기와 부치나(buccina), 클라린(clarin), 오피클레이드(ophikleide), 키뷰글(keybugle)등 개조된 악기로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 르네상스 트롬본과 로마 부치나는 중세후반과 르네상스시대의 음악을 선보이고 현대악기 관악기는 고전시대와 로맨틱시대의 음악, 아방가르드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독일 현지에서는 실내악, 축제, 성당, 의회행사, TV 및 라디오출연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 인도, 한국, 미국 등의 해외공연을 하였다.

2. 제주국제관악제의 방향과 목표

제주국제관악제는 제주의 여름과 어우러진 전문관악축제로 관악을 통하여 시민이 화합되고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관광 축제라는 방향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연대감을 고취하고 음악의 정신인 '하모니'를 통해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문화교류와 우의를 증진시키면서 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고루 추구하는 세계적 관악축제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3. 제주국제관악제의 축제개요

2008년 제주국제관악제의 축제개요는 다음과 같다.

- ① 명칭: 2008 제주국제관악제 / 2008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 ② 주제: 섬, 그 바람의 울림! / Island, The Resonance of Wind!
- ③ 기간: 2008년 8월 12일(화) ~ 8월 20일(수)
- ④ 장소
 1. 공연 및 콩쿠르- 제주해변공연장, 문예회관대극장, 한라아트홀, 서귀포천지연야외공연장, 한림공원, 약천사, 국립제주박물관, 대흘초등학교
 2. 관악캠프- 뉴코리아리조트(트럼본·플루트)
- ⑤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 ⑥ 후원: 문화체육관광부·제주도교육청·제주도문화예술재단·한국예총제주도지회·제주도관광협회·MBC 제주문화방송·KBS 제주방송총국·JIBS

⑦ 협찬: 제주은행

4. 제주국제관악제의 운영방침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는 일곱 가지의 지침을 마련하여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홀수 해는 밴드축제, 짝수 해는 전문 앙상블축제 및 국제관악콩쿠르를 마련하여 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고루 추구하는 효과적인 축제로 격년제로 실시한다. 둘째, 국내외 우수 관악단을 초청하여 참가자들의 국제적 안목을 높이며 세계 관악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고 분야별 국내외 유명 관악인들을 초청하여 연주와 공개강좌를 마련하여 축제의 전문성을 높인다. 셋째, 지역과 국가 간의 관악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하며 민간차원의 문화교류 계기를 마련한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집약한 주요장소에서 연주회를 마련, 참가 관악단들은 그룹별로 순환출연한다. 다섯째, 국내외 전문가에게 제주, 또는 한국적 정서를 나타낼 수 있는 창작곡을 위촉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소개한다. 여섯째, 짝수 해 제주국제관악콩쿠르의 1위 입상자는 홀수 해 밴드축제에 초청하여 관악단과 협연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 일곱째는 제주도내 연주자 및 합창단의 참여폭을 넓힌다.

5. 제주국제관악제의 축제 추진 조직

1. 축제 추진 조직의 구성

① 조직위원회: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축제 전체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며 대회기간 동안 국내, 국외 참가팀이 도착 할 시 영접 및 격려, 각 축제장 및 경연장 순회하며 격려한다.

② 집행위원회: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축제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며 각 축제장 및 경연장의 일일운영을 점검, 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 축제 사무국장: 축제 사무국의 책임자이다.

④ 팀별 업무

·총괄기획팀: 축제 전반에 관한 기획 및 팀별 업무를 조정한다.

·의전팀: 팀별 체류기간 동안 안내 및 의전 업무를 맡는다.

·홍보팀: 축제의 국내외 홍보 및 축제 분위기 조성 업무를 맡는다.

·공연팀: 각 축제장의 운영 및 행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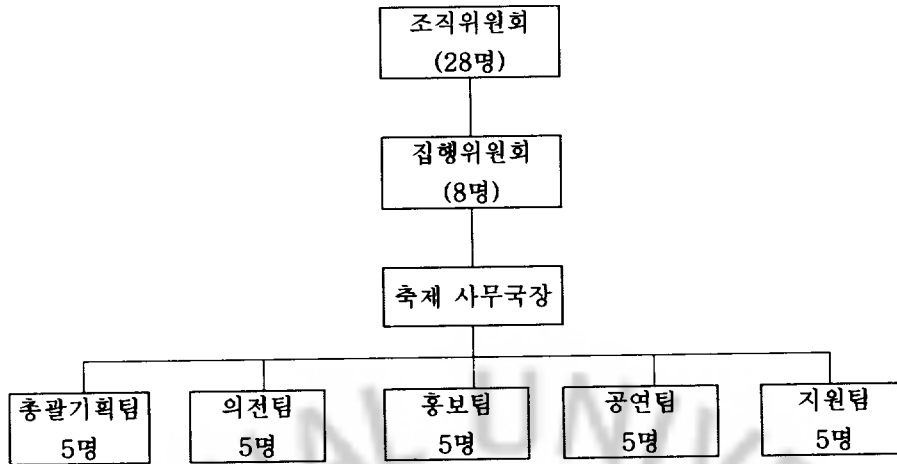
·지원팀: 전체적인 인력관리 및 소품을 확보하고 악기를 관리한다.

⑤ 자원봉사자: 공연장의 질서유지, 안내, 무대 관리, 팀 인솔, 통역 등을 맡는다.

2008 제주국제관악제 자원봉사자 현황

구분	공연장 질서유지	공연장 안내	팀 인솔	무대 관리	보조축제 지원	통역	사회자	계
인원	13	16	8	80	12	20	8	157
비고	4개 공연장	공연장별 4	-	공연장별 20	축제당 3	-	공연장별 2	

제주국제관악제의 축제조직도



6. 제주국제관악제의 홍보방법

제주국제관악제의 홍보는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홍보 방법은 다음과 같다.¹⁷⁾

17) 논자가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2008 제주국제관악제 사업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재구성함

형태	홍보 방법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www.jiwef.org, www.jeju.go.kr ·도내 주요 인터넷 언론 및 음악전문사이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방송국(코리아인터넷방송국, 제주의 소리)을 통한 축제의 실시간 중계 -제주뉴시스, 제주투데이, 미디어 제주 등 인터넷신문에 배너광고 게재 -음악전문 사이트인 고 클래식에 배너광고 및 홈페이지 링크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방송사 (KBS, JIBS, MBC, KCTV)에 광고 ·뉴스 및 문화예술 코너를 통한 홍보
인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포스터, 전단지 등을 제작하여 세계 주요 대학의 관악 교수, 각국 관악협회, 대륙별 주요 관악 연주단체, 전국 자치단체, 각 대학, 중·고등학교와 각종 문화시설에 배포 ·도내 각 공연장과 중·고교, 공항과 항만, 은행, 호텔 등에 배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간선도로 및 교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홍보 영상물 광고 ·신제주 로터리, 노형 로터리, 세무서 사거리에 선전탑 설치 ·제주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도내 지역 게시대에 현수막 설치 ·각 공연장의 무대 및 외벽에 대형현수막 설치

7. 2008 제주국제관악제의 규모

2008년 열린 제주국제관악제의 행사 내용과 초청된 초청인사, 참가 단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년도	출연단체		초청인사	축제 내용
	국내	국외		
2008	18개 단체 820명	5개국 10개 단체 168명	43명	관악단 순회연주회, 개막식, 트롬본·플루트 캠프, 마에스트로 콘서트 '비상', 고악기 공연, 주 시가퍼레이드, 환영행사 '제주의 밤', 제6회 초등학교 합주경연대회, 제주도립무용단 특별 공연, 관악기 무상 수리 코너, 축제사진전시, 관악기 전시

18) 논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제13회 제주국제관악제 운영계획서」를 토대로 재구성함

국내 참가 관악단 및 앙상블	국외 참가 앙상블 및 관악단
계명대학교관악단 서울색소폰콰르텟 일신여자고등학교관악단 서울트롬본앙상블 코리아플루트솔로이스츠 CAU오보에앙상블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제주경찰악대 제주방어사령부 해군군악대 함덕고등학교취타대	체스트넛브라스컴퍼니(미국) 아메리칸호른콰르텟(미국) 산루이스오비스포윈드오케스트라(미국) 부치나앙상블-본(독일) 피닉스파운데이션(독일) 로렐라이앙상블(독일) 오노트브라스(프랑스) 게오르그솔티브라스앙상블(헝가리) 교토시립교향악단브라스앙상블(일본) 하이브리드트롬본콰르텟(일본)

8. 제주국제관악콩쿠르

2000년도 제1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를 시작으로 2008년 제5회째를 맞는 제주국제관악콩쿠르는 세계의 젊은 관악인들의 의욕을 높이고 연주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관악콩쿠르이다. 금관악기 7개 부문(트럼펫, 호른, 테너 트롬본, 베이스 트롬본, 유포니움, 튜바, 금관5중주)이라는 광범위한 규모와 참가자 전원이 캠프생활을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차세대 관악 유망주들이 경쟁을 통해 우의를 다진다. 참가자들은 1차·2차 예선을 거쳐 결선에 오르게 되고 각 부문별 1위들은 도립제주교향악단과의 협연을 통해 대상을 가리게 된다.

2008년부터는 세계콩쿠르연맹 (World Federation Of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s)의 권고사항에 따라 대상선정음악회 뿐만 아니라 각 부문 최종 결

선도 도립제주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이루어졌다.

국제관악콩쿠르의 심사위원은 같은 해 열리는 앙상블 축제에 초청된 앙상블 팀의 연주자들과 국내·외 우수한 관악 연주자들이다. 앙상블 축제에 초청된 연주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권위 있는 앙상블 팀을 초청하게 되는 효과와 예산절감의 이중효과를 가져온다.

2008년도에는 17개국 183명 참가라는 외형적인 성과 이외에도 국내외의 심사위원들로부터 참가자들의 수준이 현저히 높아져 외국의 어떤 콩쿠르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¹⁹⁾

2008년 제주국제관악콩쿠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⁰⁾

제주국제관악제 국제관악콩쿠르

부문: 호른, 트럼펫, 테너 트롬본, 베이스 트롬본, 유포니움, 튜바, 금관5중주

기간: 2008년 8월 11일(월)~8월 20일(수)

참가자격: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참가자숙소: 한라대학 기숙사

경연 장소: 한라아트홀 대극장 · 소극장

등록비: USD 100

캠프비: 1인당 200,000원(내국인에 한함)

19)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2008 제주국제관악제 사업실적 보고서」

20) 제주국제관악제 홈페이지 게재

시상내역(각 부문별)

- 개인 6개 부문: 1위 5,000\$, 2위 3,000\$, 3위 2,000\$
- 중주 부문: 1위 10,000\$, 2위 7,000\$, 3위 5,000\$
- 대상(그랑프리): 8,000\$
- 특별상: 개인부문 1명 1,500\$, 중주부문 1팀 1,500\$

방침: 경연참가자는 전원 한라대학 기숙사에서 10일간 합숙 공동캠프 생활

콩쿠르 대상 선정 음악회 - 각 부문별 1위 입상자가 도립제주교향악단과의 협연을 걸친 경연으로 최종 대상을 선정하는 음악회



IV. 제주국제관악제의 활성화 방안

1. 문제점

1) 예산

음악행사를 위해 지원단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것이 그 행사를 이루어 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제주시는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예산에 대한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음악단체에 100% 맡겨 운영하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의 경우 제주시가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음악제가 어느 정도 성공의 윤곽을 드러낸 1999년부터이다. 1억5천만원 지원한 이후 관악제 규모에 따라 예산을 조정 지원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8년도 기준 제주국제관악제의 예산은 전년보다 1억이 증가한 6억이었다. 이는 지명도에 비해 낮은 예산으로 통영국제음악제, 원주따뚜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 대관령국제음악제 등은 모두 제주국제관악제보다 늦게 생겼지만 예산은 14억~22억에 이른다.

국내에서 열리는 여러 예술축제들의 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국제관악제 예산(2008년도)

구분		금액
수 입 내 용	국비	100
	도비	400
	후원금	100
	합계	600

※단위:백만원

원주따뚜축제 예산(2006년도)²¹⁾

구분			금액
수 입 내 용	보조금	기금	15
		도비	500
		시비	1,120
	자부담금	전년도이월금	193
		예상수익	258
	합계		2,086

※단위:백만원

전주세계소리축제 예산(2005년도)²²⁾

구분			금액
수 입 내 용	보조금	국비	60
		도비	1,460
		시비	
	수입금	입장권,협찬, 기타수입	430
	합계		1,950

※단위:백만원

21) 재단법인원주국제타투, 「2006 원주따뚜 결과보고서」 p.173 재구성

22) 박창호, "음악축제 분석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자라섬제즈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디지털미디어대학원, 2006, p.37

통영국제음악제 예산(2005년도)²³⁾

구분		금액	
수입 내용	보조금	국비	300
		도비	100
		시비	800
	수입금	판매수익	310
		후원금	90
	합계		1,600

*단위:백만원

대관령국제음악제 예산(2005년도)

구분		금액
수입 내용	국비	300
	도비	1,200
	사업수입금	680
	합계	2,180

*단위:백만원

국제라는 타이틀을 내건 국내의 다른 음악축제의 예산을 보면 제주국제관악제 예산의 세 배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지원받는다고 해서

23) Ibid., p.31

그 음악축제가 훌륭하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보다 질 좋은 축제를 위한 좋은 연주단체와 유명 관악인 섭외,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전문양상불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을 섭외해야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여의치가 않다. 세계적인 관악 연주가 단 한 명만 오더라도 음악축제의 품격과 흥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주국제관악제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유명밴드의 초청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제주를 찾는 연주단체들이나 연주자는 제주 관악인 및 제주국제관악제와 인연이 있어 출연료가 다소 적어도 참가했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인연만으로 이들을 초청할 수는 없다. 2008년도에는 고유가에 따른 항공료가 인상되어 이에 따른 예산 부담이 어느 때보다 심했다.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기에 항공료 부담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출연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 초청에 소요되는 항공료마저 뛰어 외국 관악인들의 초대가 더욱 어려워졌다.

2) 전문 인력 부족 및 홈페이지 부실

제주국제관악제의 위상에 비해 조직위원회의 구성은 너무나 열악하다.

현재까지 제주국제관악제 행사시 약 2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사회, 통역, 공연장 안내, 공연장 질서유지, 축제참가팀 인솔, 무대 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다. 또한 20여명의 조직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5명의 집행위원과 10여명의 사무국 팀이 실질적으로 제주국제관악제를 운영한다. 이들 대부분은 제주 음악인으로서 행사시 음악회와 축제 진행 등 관악제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제주국제관악제의 홈페이지는 너무 부실하다. 타 예술축제의 홈페이지와 비교해보면 정보의 업데이트 속도가 너무 느리고 디자인도 뒤떨어지는 편이다. 그리고 게시판의 경우 질문의 답변이 늦거나 아예 없어 질문자로 하여금 제주국제관악제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3) 주민 참여 프로그램 부족

제주국제관악제가 연륜을 쌓으면서 많은 도민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으나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와 공연관람에 불과하다. 도민들이 관악제를 아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체험하고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2. 해결방안

1) 예산 확충

예술축제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역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이 유치되고 숙박, 교통, 쇼핑, 관광 등에서 관광객의 지출이 수반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며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 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관객의 감상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자원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국제관악제의 예산을 보면 국비 1억원과 도비 4억원, 제주은행지원금 1억이 전부이다. 후발주자인 국내의 원주따뚜축제, 대관령국제음악제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예산 확충을 위해 논자는 세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제주국제관악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한 세계적인 관악제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단순히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한 금액을 비교해 보면, 2006년 원주따뚜축제의 지원예산은 16억 정도이고 2005년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지원예산은 15억 정도이다. 그리고 2005년 통영국제음악제의 지원예산은 12억, 2005년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지원예산은 15억으로 이 축제들의 지원예산은 제주국제관악제 지원예산의 3~4배에 달한다. 조직위원

들이 안정적으로 자신들이 지향하는 방향의 축제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 문화 예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사회로 환원하는 메세나 활동을 제주국제관악제에 할 수 있도록 여러 기업들과 접촉을 하는 스폰서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로는 제주은행만이 참여하고 있는데 더 다양한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 예로 한국 메세나의 선두주자인 금호아시아나의 문화재단은 1977년 '문화가 살아야 일류 국가'라는 취지하에 클래식 음악과 미술, 장학 분야를 지원하며 한국 문화예술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문화 활동을 좋아한다고 정평이 난 故박성용 회장에서 현재 박삼구 회장이 직접 문화 사업을 지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재단은 음악 영재 발굴과 악기 무상 임대에서부터 연주자 항공권 제공,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음악 영재들이 세계적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밖에 클래식 공연 기획, 해외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 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미술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 셋째, 후원회를 조성하는 것도 예산확충의 한 방법이다. 한 예로 세계최고의 음악축제라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경우 2002년도 총예산은 499억원에 이르고 이 중 후원금이 축제예산의 14%를 차지한다. 이 축제를 후원하기 위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친구들'이라는 협회가 구성되었고 매년 우리 돈으로 약 10만원 씩 납부하는 정회원이 1,800여명, 약 100만원씩 후원하는 후원회원 2,000여명을 구성하여 모금된 후원금을 축제에 기부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모델삼아 제주국제관악제도 소액다수의 후원자들을 확보하면 축제의 재정을 후원 할 뿐만 아니라 제주국제관악제의 지지층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다.

2) 전문 인력 구축 및 홈페이지 강화

제주국제관악제가 명성에 걸맞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홍보와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의 상설화가 시급하다. 2008년을 기준으로 조직위원회의 상주직원인 두 명에 불과하다. 1년 365일 동안 축제를 준비해야 하는 현 상황으로

보았을 때 터무니없이 적은 인원이다. 현재 조직되어 있는 총괄기획팀, 의전팀, 홍보팀, 공연팀, 지원팀의 직원 채용 및 보강 등과 함께 보수도 현실화해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사무국의 운영으로 연중무휴인 관악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관악제의 홈페이지는 너무 부실하다. 홈페이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주국제관악제를 접한 적이 없거나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하고 홈페이지의 상태로 축제의 수준을 평가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의 홈페이지는 다른 예술축제들의 홈페이지와는 달리 자료의 업데이트 속도가 너무 느리고 홈페이지 디자인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 제주국제관악제의 얼굴을 깎아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공하는 축제는 현장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성공해야 하는 시대이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완벽하게 축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전문가가 상근하여 업데이트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주국제관악제는 단순한 공연이나 전시회처럼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한두 시간 내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각 부문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3) 관악인구 저변확대

관악제 개최지로서 학교밴드를 활성화시키고 관악인구를 늘려야 한다. 그 방법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초·중·고등학교의 관악대 수를 늘려야 한다. 중국에는 베이징에만 1000개, 국가 전체로 보면 2만개의 관악대가 있고 대만에는 1만 6000개의 관악대가 활동 중인데 한국에는 고작 400개뿐이다. 제주도의 학교밴드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그리고 고등학교 14개 등 총 18개에 불과하다. 베이징의 인구수가 1670만명(2008년 1월 통계)인 점을 감안해 보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의 입시제도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의 밴드활동이 힘들지만 초·중·고등학교에서 접한 음악을 통해 아이들은 바람직한 가치관과 함께 생명, 자유, 평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전인교육의 큰 틀에서 초·중·고등학교의 밴드 증설을 제안한다. 둘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마추어 관악대를 증설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에 있는 아마추어 관악대는 한라원드앙상블이 전부이다. 직접 연주하면서 즐기는 관악이 될 수 있도록 관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제주 도민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자치센터에서 관악교실을 운영하여 도민들이 관악제 개최도시 시민으로서 관악기 하나쯤 연주하고 나아가 아마추어 밴드를 결성해 연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주국제관악제 기간 동안 제주도민이나 관광객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자원봉사나 연주 관람밖에 없다. 축제기간 동안 페이스페인팅을 해주거나 난타공연처럼 관객이 공연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가단체의 나라 홍보, 독특한 문화, 전통음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문화체험관을 신설해 관객이 축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관악기의 연주 체험공간, 마칭밴드의 행진이나 마칭쇼를 통하여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V. 결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축제를 만드는 일은 생각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정, 보완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주국제관악제를 한시적인 이벤트나 관광자원으로 인식하지 말고 제주도를 대표하고 나아가서는 한국, 세계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해마다 8월이면 제주도는 관악의 향연으로 달아오른다. 국내에서 관악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이제 제주의 관악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이는 그 동안 숏한 어려움을 극복해 낸 제주 관악인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1995년 제1회 제주국제관악제를 개최한지 벌써 14년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축제 중 하나인 제주국제관악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예산확충 방안이다. 이 방안에도 3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로부터의 적극적인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라는 타이틀을 내건 여러 축제들은 모두 제주국제관악제보다 후발주자이지만 정부와 도, 시로부터의 지원예산은 제주국제관악제 예산의 3~4 배에 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직위원회에서는 기업들이 국제관악제에 메세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접촉하고 적극적인 유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과 함께 제주국제관악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후원회 구성을 해야 한다. 축제에 필요한 예산이 확충된 후 비로소 세계 유명 밴드나 솔로 연주자들의 참가를 이끌어 내 축제의 수준을 한 단계 상승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전문 인력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보완해야 한다.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충원해서 좀 더 전문화의 사무를 관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국제관악제의 홈페이지는 타 음악축제의 홈페이지에 비해 디자인이 뒤떨어지고 정보 업데이트 속도도 너무 느리다.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의 중

요성을 말할 나위도 없다. 제주국제관악제를 접한 적이 없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축제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관악제의 규모나 질을 평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셋째, 관악인구를 확충해야 한다. 중국은 베이징에만 1000여개에 이르는 밴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밴드 숫자는 400여개에 불과하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 밴드를 활성화시켜야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다.

넷째,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연주관람이나 자원봉사에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앞으로 많은 재원과 관심을 통하여 제주국제관악제가 이름에 걸맞는 세계적인 관악제로 발전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음악축제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명자, 「축제와 기원」(서울: 문화관광부) 1998
- 류정아, 「축제와 문명 Fêtes et civilisations」, 한길사, 1998
- 문화관광부, 「한국의 지역축제」 1996
- 부만근, 「광복제주 30년」, 서울(설문조사), 1982
- 재단법인원주국제타투, 「2006 원주따투 결과보고서」, 2006
-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2008 제주국제관악제 사업실적 보고서」, 2008
- 제주도지 편집 위원회, 「제주도지(상)」, 제주도, 1982
- 제주시,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문화·예술·사회적 환경에 대한 연구」, 2004
- 한국관광공사, 「한국민속축제 관광 상품화 방안」, 1990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축제에 관한 실태조사」 1996
- Harvey Cox, 「The Feast of Fools: Theological Essay on Festivity and Fantasy」, Cambridge: Mass, 1969

2. 논문

- 박창호, "음악축제 분석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디지털미디어대학원, 2006
- 백선혜,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신혜영, "문화예술축제 참여주체의 역할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2
- 이수연, "대관령 국제음악제 활성화 방안 연구", 추계예술대 예술경영대학원, 2006

3. 신문기사

- 김현중, "5회 만에 세계최고 콩쿠르 면모, 언빌리버블", 제주일보, 2008. 08. 21

4. 인터넷

- 금호아시아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kacf.net/HomeFD/Main.aspx>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제주국제관악제 홈페이지 <http://www.jiwef.org>
- 한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



국 문 초 록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높아진 국민소득, 상대적으로 늘어난 여가시간으로 인해 생존 자체보다는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세계화를 지향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문화의 수용이 전보다 자연스러워졌으며 국제적 문화에 대한 향수층의 욕구 또한 커지게 되어 각 지역에서 국제라는 타이틀을 내건 국제예술축제를 많이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축제 중 하나인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표출된 문제점을 연구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반적인 축제에 관련된 각종 서적 및 자료를 바탕으로 축제의 개념 및 기능을 알아보았으며, 각종 연구문헌과 단체, 관련 학회 등에서 발행한 정기간행물과 보고서 등에 나타난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국제관악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표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예산확충 방안이다. 이 방안에도 3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로부터의 적극적인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라는 타이틀을 내건 여러 축제들은 모두 제주국제관악제보다 후발주자이지만 정부와 도, 시로부터의 지원예산은 제주국제관악제 예산의 3~4 배에 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직위원회에서는 기업들이 국제관악제에 메세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접촉하고 적극적인 유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과 함께 제주국제관악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후원회 구성을 해야 한다. 축제에 필요한 예산이 확충된 후 비로소 세계 유명 밴드나 솔로 연주자들의 참가를 이끌어 내 축제의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전문 인력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보완해야 한다.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충원해서 좀 더 전문화의 사무를 관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국제관악제의 홈페이지는 타 음악축제의 홈페이지에 비해 디자

인이 뒤떨어지고 정보 업데이트 속도도 너무 느리다.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의 중요성을 말할 나위도 없다. 제주국제관악제를 접한 적이 없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축제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관악제의 규모나 질을 평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셋째, 관악인구를 확충해야 한다. 중국은 베이징에만 1000여개에 이르는 밴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밴드 숫자는 400여개에 불과하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 밴드를 활성화시켜야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다.

넷째,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연주관람이나 자원봉사에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축제를 만드는 일은 생각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정, 보완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주국제관악제를 한시적인 이벤트나 관광자원으로 인식하지 말고 제주도를 대표하고 나아가서는 한국, 세계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Abstract

Improving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A successful music festival is one that is satisfying to both participating musicians and the general public. Organizing such a festival however, is far from easy.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as we know it today, is the product of the passion and efforts of Jeju's local wind musicians over the past 14 years. In order to improve upon this annual festival, it is important that it not be treated as a minor event on the tourist calendar. Instead, there are 5 concrete ways in which the JIWEF can be upgraded to truly world class.

First, efforts should be made to raise money for the festival. One potential source of funding is the central government. Other music festivals receive 3 to 4 times as much government funding as the JIWE Festival, so it is reasonable to request a similar level of support. Another possible method of raising money would be for the festival committee to solicit support from private companies. Indeed, we may even set up a separate committee dedicated to looking for sources of funding while simultaneously promoting the JIWEF itself.

Next, we can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is yearly August festival by making additions to JIWEF staff. Planning and putting on such a complex event requires that we hire people with broad experience in the field of musical event organization. Rather than merely employ people with a passing interest in music or this festival in particular, we should concentrate our efforts on the recruitment of people with experience organizing successful musical festivals. The JIWEF would benefit immeasurably from the insights and know-how of those who already have extensive experience with all stages of the musical event planning process.

Another area of focus in our efforts to improve the festival is the JIWEF's Internet homepage. The current homepage has a primitive design and loads slowly when judged by today's standards. Such a homepage does not give a good first impression to those who visit it on the web, nor does it adequately serve their needs. Therefore, our focus should be on the thorough modernization of the JIWEF homepage. This can be achieved either by an in-house upgrade or by outsourcing the revamp work to an outside web design firm.

A fourth area that requires attention is the improvement of music education. Music classes help to foster an interest in music that can last a lifetime. Thus an early investment in music education can pay dividends to the JIWEF in the long run as children who take music classes mature into adult music enthusiasts. It is important to begin to nurture musical skills from an

early age. Without such education, many who possess latent musical genius may miss the chance to develop to their full potent as musicians. Specifically, the JIWEF can benefit from the promotion of high school bands which may ultimately produce some of the talent that performs in future festivals. Certainly, it is worthwhile to invest in education for the long term good of the JIWEF.

Finally, it is important to promote community involvement in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By doing a better job of involving average Jeju citizens in the JIWEF, we will help to encourage greater participation in the Festival itself. This can be done in part by bringing in average people to work as volunteers for the festival. Further, we should actively work to attract more people to come and join the audience at the festival by focusing on more effective advertisements and publicity.

In summary, there are 5 specific areas in which we can work to improve the success of the JIWEF. By focusing on raising funds, hiring experienced staff, updating our homepage, fostering music education, and promoting greater Jeju community involvement, we can go a long way toward reaching our goal of having a better festival. Indeed, through our sustained effort there is no doubt that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can attain truly world class status as one of the yearly highlights on the international music scene.

